

불살생, 동체대비로 더 이상의 죽음 막아야

연이어 안타까운 자살 소식이 들려옵니다. 목숨을 스스로 버려야 할 만큼 그를 힘들게 짓눌렀던 것이 무엇이였을까? 우리는 왜 그 고통을 알아보고 그의 손을 맞잡지 못했을까? 한없이 무거운 마음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자살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우울증, 세상에 대한 좌절·절망·고립·압박감 등입니다. 누구도 이런 어려움을 만나지 않고 삶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어려움을 밖에 터놓고 도움을 구할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생사의 갈림길을 만듭니다.

이제 우리는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맨 얼굴을 발견하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더 이상 한 사람의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릴 때까지 머뭇거리다 때를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엎질러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순 없지만 다른 잔의 물이 엎질러지지 않도록 살펴야하는 정성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정치와 행정이 모든 일을 푸는 만능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일이 거기에 좌우됩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 어려움을 당해도 주변에서 함께 거들어주는 사회를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물질적으로 부족한 세상에 살고 있을까요? 나만 잘살면 행복한 삶이 보장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한 생명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모든 것들이 더불어 존재하는 상생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함께 살아야 합니다. 나눔과 봉사, 배려와 관심은 상대방을 위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의 삶도 윤택하게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기도 합니다. 경제민주화, 사회복지의 구호나 과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실현되어야 하는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종교도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반성해 봅니다. 부처님은 중생의 안락과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길을 나서라고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은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으뜸으로 주셨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은 종교인이 성인의 가르침을 오롯이 실천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불교에서 가장 큰 윤리적 가치인 오계(五戒) 가운데 먼저 꼽는 것이 불살생(不殺生)입니다. 단지 산 것을 죽이지 마라는 소극적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생명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결코 만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부디 내 목숨이라고 스스로 죽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부모들이 자신의 절망을 이

유로 자식들까지 죽이는 일은 결단코 사라져야 합니다.

하나의 생명은 그 자체로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의 생명은 우주와 같습니다. 우주의 축복으로 태어난 생명이기에 그 삶은 어떠한 경우에도 행복한 존재입니다. 소중한 자신의 삶을 지키고 가꾸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지키고 돌봐야 합니다. 생명 위기의 시대, 종교계부터 더욱 노력해 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베르테르 효과’라는 말처럼 자살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도 전염됩니다. 언론이 단지 자살 소식을 자극적으로 보도하는 데 그친다면 뜻하지 않게 ‘베르테르 효과’를 만듭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자살에 대한 언론보도의 변화로 자살률이 절반 가까이 낮아졌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신중하고 섬세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민족은 오랜 전통과 문화, 상생의 공동체를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계에서 자살을 1위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동체대비(同體大悲)의 마음으로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고 모두 함께 살리는 사회를 만드는 길에 우리 모두가 신명(身命)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만사를 제치고 우선 해야 할 일입니다. 다함께 삼시다.

자살예방 주요 종교기관

- 불교상담개발원 자살예방센터(02-737-7378)
- 생명나눔실천본부 자살예방센터(02-735-1010)
- 한국가톨릭자살예방협회/한마음한몸운동본부자살예방센터(02-318-3907)
- 생명의 전화(02-763-9195, 상담전화1588-9191)
- LIFEHOPE 자살예방센터(070-8749-2114)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의장,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 스님